
2011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2011년 5월)

< 목 차 >

1. 세계 인터넷 연결 평균 속도 1위 한국 - '인터넷 현황 보고서 아태판' (2011. 4. 27)
2. 유럽연합, 미래 인터넷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시작 (2011. 5. 3)
3. 유럽에서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2011. 5. 3)
4. 안드로이드 단말을 노리는 악성코드 400% 급증 (2011. 5. 10)
5. ITU, EPO(유럽특허청)와 정보공유 합의 (2011. 5. 13)
6. 미국 NIST, "표준화 활동에 연방정부 참여 설문조사" 결과 중간보고 (2011. 5. 13)
7. 일본, 클라우드 도입기업 65%가 기대한 성과 만족 (2011. 5. 18)
8. 유럽연합,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개정 법률 발효 (2011. 5. 23)
9. 일본, WiMAX 등 단말기의 의료기기 전파영향 보고 (2011. 5. 26)
10. ITU, FG AVA (Focus Group on Audiovisual Media Accessibility) 작업계획 마련 (2011. 5. 31)

◎ 토막뉴스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5월1일~5월3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1. 세계 인터넷 연결 평균 속도 1위 한국-인터넷 현황 보고서 아태판

- 보도날짜 : 2011. 5. 2.
- 출처 : RBB Today
- 사이트 : <http://www.rbbtoday.com/article/2011/05/02/76667.html>

■ 개요

- 일본 아카마이는 2010년 4/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 아태판”을 발표(“11.05.02)
 - 이 보고서는 인터넷 보급률과 공격 트래픽 등의 동향, 인터넷에 관한 주요 통계 등을 포함
 - 세계 각국의 평균 접속 속도는 1.9Mbps, 1위는 한국 13.7 Mbps, 이어 홍콩 9.4Mbps, 일본이 8.3Mbps

■ 주요내용

- 유일 IP 주소 개수는 234 개 국가와 지역에서 5 억 5,600 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 이상 증가
 - IP 주소의 70 %가 상위 10 개국/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 IP 주소의 대다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
 - 주소 개수는 미국(1억 3,720만건), 이어 중국(6,723만건), 일본(3,955만건) 등이며, 한국은 2,200만건으로 7위를 차지함
- 세계 각국의 평균 접속 속도는 1.9Mbps, 1위는 한국 13.7 Mbps, 이어 홍콩 9.4Mbps, 일본이 8.3Mbps
- 평균 최고 연결 속도는 세계 평균이 8.8Mbps로, 홍콩 (37.9Mbps), 한국(32.3Mbps), 루마니아(31.7Mbps), 일본(30.5Mbps) 순임
- 세계 207 개국을 출처로 하는 공격 트래픽을 관찰한 결과, 출처 1 위는 러시아 10%,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위 대만 7.6%, 4위 중국 7.4%가 톱 10에 들어감



2. 유럽연합, 미래 인터넷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시작

- 보도날짜 : 2011. 5. 3.
- 출처 : 유럽연합
- 사이트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1/525&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유럽연합은 미래 인터넷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FI-PPP)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였다. 인터넷은 컴퓨터, 사람을 연결해 주고 있지만, 무선화 하면서 기계나 물건의 범위까지 연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으로는 앞으로의 데이터 흐름을 처리하기 어렵고 정확성 및 안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유럽연합은 3억 유로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에서 같은 금액을 마련하여 총 6억 유로를 지원하게 된다.

※FI-PPP (Future Internet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 FP7에 참여하고 있는 23개국 152개 기관들이 참여. 1단계(2011-2012)는 대형 시범 서비스 준비, 2단계(2013-2014)는 유럽 전역에 걸친 대형 인터넷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구현, 3단계(2014-2015)는 지역 혁신 정책과 연결한 디지털 에코시스템으로의 실용화 단계로 구성

■ 현황

인터넷 경제는 2014년까지 GDP의 5.8%를 차지할 것이며 이는 약 8천억 유로에 해당함.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60%씩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임

■ 1단계 프로젝트 - 표준화된 상호운용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개발

1단계로 시작한 FI-WARE 프로젝트는 41백만 유로를 지원받아 프라이버시, 실시간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미래 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핵심 플랫폼 툴을 개발할 예정



3. 유럽에서의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 보도날짜 : 2011. 5. 10.
- 출처 : Talk standard - CEN, CENELEC and ETSI Smart Grids Coordination Group(SG-CG) 사무국장 기고
- 사이트 : <http://www.talkstandards.com/smart-grids-standardization-in-europe/>

유럽 표준화기구(ESO)인 CEN, CENELEC, ETSI는 스마트 그리드 표준을 위한 합동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월 4일 승인된 이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 제안 사항

- Top down 접근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상호 조정이 필요하므로 강력한 조정이 있어야 함
- 유연한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 등이 여전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유연한 구조를 통해 서비스 및 유즈케이스 설계가 가능해야 함
- 단일 유럽 유즈케이스 구축에 동의 : 현재 및 앞으로의 표준화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단일화된 유즈케이스 저장소 구축
- 국제 표준과의 제휴 : 관련 국제 및 국가 표준화 활동과 협력
- 기존 성숙된 표준을 적절히 재 사용
- 표준화에 맞게 조직, 절차 구성 : 스마트 그리드는 제품보다는 시스템 이슈이므로 기존 CEN, CENELEC, ETSI의 기술조직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에 대한 위임명령(mandate)인 M/490을 발표하고 다음의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다.

- 기술적 참고 구조 : 기능적 정보데이터 흐름, 시스템간 연결, 보조 시스템 구조
- 일관적인 표준 집합 : 프로토콜, 데이터 모델, 시스템 통합 운영
- 이해관계자간 교환이 가능한 협력 톨과 표준화 절차

※스마트미터(M/441), 전기차충전(M/468) 등 기존의 다른 위임명령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ESO는 상기 위임명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서의 합동그룹을 Smart Grids Coordination Group(SG-CG)으로 변경하고 SG-CG는 2012년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4. 안드로이드 단말을 노리는 악성코드 400% 급증

- 보도날짜 : 2011. 5. 10.
- 출처 : Juniper Networks
- 사이트 : http://www.juniper.net/us/en/company/press-center/press-releases/2011/pr_2011_05_10-09_00.html

■ 개요

- Juniper Networks는 모바일 보안 동향 보고서에서는 안드로이드 탑재 단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 건수가 2010년 여름 이후 400% 증가했다고 발표('11.05.10)
 - 이 보고서는 2010년 부터 2011년에 걸쳐 출현한 "Tap Snake" "Geinimi" "Walk and Text"등 단말기를 노린 악성 코드와 해적판 애플리케이션 동향, 단말기 및 데이터의 부정 이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함
 -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판매하는 스토어가 최대의 감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 해커들의 주 공격목표가 보안성이 일반 시스템보다 현저히 취약한 모바일기기로 옮겨가고 있다고 함
 - 이는 운영체제시스템통합 및 다량의 기기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모바일기기 소프트웨어 설치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해킹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해커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
- 멀웨어 감염 중 17%는 유료 번호로 SMS 메일을 보내는 트로이 목마가 차지
- Wi-Fi 공격도 증가하여 피해자의 메일이나 SMS 등을 도청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출현
-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Juniper의 고객은 20개사 중 1 개사에 달함
- 10 대 사용자의 20%가 휴대폰에서 잘못된 내용이나 외설적인 내용을 전송
- 안드로이드 멀웨어 공격은 '10년 여름 이후 400%증가



5. ITU와 EPO(유럽특허청) 정보공유 합의

- 보도날짜 : 2011. 5. 13.
- 출처 : ITU
- 사이트 :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1/CM12.aspx

ITU와 EPO(European Patent Office)는 표준 제정자의 특허 품질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보 공유 합의를 발표하였다.

표준은 시장에서 신규 기술의 폭넓은 채택에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 구현시 하나 이상의 특허 보호 기술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특허와 표준 간에 잠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합의문은 특허권자, 표준 구현자 및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시장 기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ITU 총장 Hamadoun Touré는 "ITU는 오랫동안 특허권자의 요구사항 및 소비자의 수요에 충족하는 조건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려한 IPR 정책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번 협정문은 특허와 표준 간에 생기는 도전에 부응하는 대응체계를 제공하고 ITU에 제출되는 특허정보의 투명성을 증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Benoît Battistelli 유럽특허청장은 "이번 합의문은 표준과 특허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특허 심사관들이 효율적으로 특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제정기구와 특허청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협정문에 따라 ITU는 ITU의 특허DB가 ITU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특허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EPO DB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표준과 IPR에 대한 공동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이다.

표준기술의 보급을 보장하고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ITU는 2007년 WSC(World Standards Cooperation) 참여자인 ISO, IEC와 함께 공통특허정책(Common Patent Policy)을 채택한 바 있다. 공통특허정책은 표준 구현자와 특허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산업계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ITU 표준에 포함된 특허는 부적절한 제한없이 모든 이해관계인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PO에 대하여 이번 협정문은 특허 품질과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EPO가 ITU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6. NIST, "표준화 활동에 연방정부 참여 설문조사" 결과 중간보고

- 보도날짜 : 2011. 5. 13.
- 출처 : 미국 NIST(국립표준기술원)
- 사이트 : http://standards.gov/standards_gov/sos_rfi_docs/RFI%20Summary%205-13-final2.pdf

※본 자료는 보고서 중 일부(Section 2: Perspective on Government's Approach to Standards Activities)를 정리

- 표준 개발 민간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참여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가

구분	역할	사례
협력자 (Convener/Coordinator)	국가 우선순위에 맞도록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수요와 방향, 표준 활용성 등을 검토	- 스마트그리드 - 핵에너지 표준 협력
기술 지도 (Technical Leader)	표준개발기구 회원 및 의장단	민간기구에서 의장단 수행 ex) OGC 기술위원회 의장단
참가자 (Participant)	표준 작성 위원회 회원	ASTM 표준 위원회의 경우 748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이 회원
촉진자 (Facilitator)	표준 작성 계약	Health IT의 경우, CDC와 기타 기관들이 계약을 통해 표준을 개발토록 함
활용자 (Implementer/Adopter)	민간 표준을 선택 및 구현하거나, 규제를 통해 구현을 요구함	온도계에 대한 ASME 표준을 국방부 조달요구에 맞추므로써 단일화된 연방 표준 필요성을 없앴
지원자 (Funder/Enabler)	표준개발기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표준화 관점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표준개발기구를 지정	- ITS의 경우, 교통부에서 표준개발기구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 지원 - 에너지부에서 ASME의 에너지 측정 표준에 자금 지원
기술 자문 (Technical Advisor)	표준 개발 및 테스트 방법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	미 정부에서 방위산업보안본부(DICOS)를 위한 테스트 환경 기준 제공
연방기구간 조율 (Coordinator of Federal Agency Needs)	공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공식 협력 및 표준개발기구와 정보 공유	연방 지리 데이터 위원회
참관자 (Interested observer)	진행 현황 파악, 참가 기회 모색	-

- 각 방식들은 투명한가

- o ANSI 인정 모델이나 이에 기반한 참여는 투명하다는 데에 모든 응답자가 동의



■ 각 방식들을 통한 참여는 효과적인가

- 대체로 효과적이라는 답변이었으나, 정부기관 참여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착수 시기와 산업계의 관점이라는 의견임
-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정부 참여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표준개발 기구의 응답에서 기술이 성숙했을 경우 직접 참여가 효과적이며, 신기술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나 이슈 파악을 위한 회의 개최 등 간접적인 방법이 중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IT 분야의 경우에는 빠른 혁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표준을 위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5명의 의견이 있었음
- 정부의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표준이 규제적 필요성을 지원할 경우 가능한 조기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 대체로 정부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계 주도의 표준 제정을 기반으로 정부는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자세를 요구함

(중략)

이밖에도 정부 참여에 대해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들이 취합되어 있음

- 각 방식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겠는가
- 기타 어떤 방식이 시도될 수 있겠는가
- 연방기구가 표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왔는가
- 특정 분야에서 연방기구가 표준 활동시 어떻게 역할을 조율하고 있는가
- 기술 분야에서 연방기구가 표준 제정에 참여했을 때 이로인해 표준 제정 절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표준 제정 활동시 연방정부는 외부 참가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편인가, 이는 연방기구가 규제기관일때 또는 소비자일때에 따라 다른가
- 연방기구가 표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의 경우, 관련 작업 결과가 시의적절하고 가치있는가

☞ Summary:

http://standards.gov/standards_gov/sos_rfi_docs/RFI%20Summary%205-13-final2.pdf

☞ Observations :

http://standards.gov/standards_gov/sos_rfi_docs/OBSERVATIONS%205-13-final.pdf



7. 일본, 클라우드 도입기업 65%가 기대한 성과 만족

- 보도날짜 : 2011. 5. 18.
- 출처 : IT media
- 사이트 : <http://www.itmedia.co.jp/enterprise/articles/1105/18/news012.html>
- 개요
 - 일본 아즈사 감사법인은 기업과 교육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11.05.17)
 - 클라우드를 도입완료 또는 구축중인 기업은 62%에 달하며, 완료된 조직의 65%가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 4%가 "예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으며, "기대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도 20%
 - ※ 조사는 일본 상장기업 3,547개사와 매출액 500억엔 이상의 비상장 기업 1,143 개, 관공서와 대학 법인 등 비영리 단체 342개를 대상으로 실시
- 주요내용
 - 도입목적
 - "IT 비용 절감"이 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스템 및 시스템 관리를 간소화" 55%, "보안 및 비즈니스 연속성 향상" 37%순임
 - 도입형태
 -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약간 상회하였고, 서비스 제공방식은 "SaaS"가 76%를 차지함
 - 클라우드 기반 업무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조직은 33%로, 대상 업무는 "재무 회계" 61%, "판매" 또는 "구매"에서 52%, "영업 관리" 40%로 나타남
 - 클라우드 선정 및 관리
 - 선정에서 중요시하는 사항은 "비용" 79%, "실적" 66%, "정보 보안 대응" 62% 등이 상위를 차지
 - 클라우드 벤더 모니터링은 "자사의 내부 감사 및 평가"가 54%, "벤더의 자체 감사 및 자체 점검"이 36%, "타인에 의한 감사 및 평가 보고서"가 25%
 -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IT 효과
 - 정보 보안 및 위험 관리 강화"가 42%, "시스템 개발 관리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절차 정비" 40%, "IT 투자 평가 및 예산 제도의 재검토" 30%로 조사됨



8. 유럽연합,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개정 법률 발효

- 보도날짜 : 2011. 5. 23.
- 출처 : 유럽연합
- 사이트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1/622&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유럽연합의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개정 법률은 지난 2009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¹⁾, 2011년 5월 25일 개별 국가의 법률로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 금번 발효되는 두 개의 Directive는 'the Better Regulation Directive'와 'the Citizens' Right Directive'로 기존 5개의 Directive (Framework Directive, Access Directive, Authorisation Directive, Universal Service Directive and the e-Privacy Directive)를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법률에 따라 유럽통신규제기관인 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이 2010년 5월 설립된 바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의 보장을 높임

- 유선 및 무선 전화 사업자를 전화번호 변경 없이 1일 내내 교체 가능
- 소비자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시 최장 기간을 24개월로 하고, 사업자에게는 12개월 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는 다른 사업자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함
- 가입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함. 계약시 서비스 최소 품질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안전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및 스팸으로부터 보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지 의무화
- 사용자 장치로부터 정보 접근 및 저장에 대한 동의 요구

■ 유럽연합 내의 법률적 일관성

- 국가별 규제기관은 최후 수단으로서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게 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BEREC과 함께 통신 시장 경쟁 촉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

1) TTA홈페이지-자료마당-해외표준화기구동향-2009년11월호 참조



9. 일본, WiMAX 등 단말기의 의료기기 전파영향 보고

- 보도날짜 : 2011. 5. 26.
 - 출처 : 일본 총무성
 - 사이트 :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6_01000010.html
- 일본 총무성은 “WiMAX방식의 무선통신 단말기의 전파에 의한 의료기기에 미치는 조사” 결과를 발표(“11.05.26)
- 삽입형 인공심장박동기 메이커 39기종, 삽입형 제세동기(ICD) 28 기종을 대상으로 WiMAX 방식의 무선통신 단말기의 영향을 조사
 - 결과, 삽입형 의료기기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 다만, 의료기기 장착 부위를 WiMAX 방식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밀착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의
- 총무성은 2000년부터 안전/안심할 수 있는 전파 이용 환경의 정비 유지를 위해 각종 전파 이용 기기를 대상으로 전파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조사결과 보고서 :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15535.pdf



10. ITU, FG AVA(Focus Group on Audiovisual Media Accessibility) 작업 계획 마련

- 보도날짜 : 2011. 5. 31.
- 출처 : ITU
- 사이트 : <http://www.itu.int/en/newslog/Pages/default.aspx>

ITU AVA(Audiovisual Media Accessibility) 포커스 그룹의 첫 회의가 지난 5월 26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원격 참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연구기관, 장애인 단체, AV 미디어 기업, 네트워크와 서비스 제공업자, 제조업체, 소비자 전자기기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단체, WIPO, 정부단체 등 폭넓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였다.

이 포커스 그룹은 노령자 및 장애인 등 모두에게 액세스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를 위하여 주요 AV 미디어 접근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범위를 결정하였다.

- 자막(Captioning)
- 오디오/비디오 설명 및 구두 자막 (Audio/Video description and spoken captions)
- 시각 부호 및 부호 언어 (Visual signing and sign language)
- 긴급 액세스 서비스 (Emerging access services)
- 전자적 프로그래밍 가이드 및 방송광고 (Electronic Programming Guides and on-air promotion)
- 참여 및 디지털 미디어(Participation and digital media)
- 디지털 방송 TV (Digital Broadcast Television)
- IPTV
- 이동 기기(Mobile and handheld devices)
- 방송TV, IPTV와 메타데이터, 이동 기기의 액세스를 위한 주요 성능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accessibility of broadcast television, IPTV and metadata, mobile and hand-held devices)

다음 회의는 2011년 9월 15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토막 뉴스

- **일본 iSIPc, 일본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패널 토론회 개최 (2011. 4. 27)**
 - 일본 iSIPc (ICT 표준화·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월 총무성이 산하 정보통신심의회에 요청한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정책" 수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6월 6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
- **유럽 JPG, 영국의 'open standard'에 우려 표명 (2011. 5. 13)**
 - CEN, CENELEC, ETSI 3개 CEO 협의체인 JPG(Joint Presidents' Group)은 영국의 ICT 전략 중 공공조달 시 로열티 없는 'open standards' 대해 우려 표명. 영국은 전 세계 표준화기구에서 사용하는 "open standard"와 다른 의미로 사용
- **애플, 구글, MS는 화상통화를 왜 간소화하지 않을까? (2011. 5. 16)**
 - 애플의 스티브잡스는 11개월전 FaceTime의 표준화를 선언했으나, 조기 성공을 보며 마음을 바꾸었음,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Gmail에서 사용되는 video-chat 프로토콜을, MS는 비윈도우즈 플랫폼을 위한 Skype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공개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음
- **일본 총무성, 두뇌와 ICT 융합 최종 보고서 발표 (2011. 5. 18)**
 - 일본 총무성은 두뇌 연구와 ICT 융합 분야의 향후 중점 과제 및 추진체계를 정리한 최종보고서 발표
 - 중점 연구분야 : 지진 등 재해대비 초저에너지 네트워크 제어, 뇌 활동 정보에 의한 PC/장비 제어, 커뮤니케이션의 질 향상
- **일본 TTC, TTC 대사(Ambassador) 임명 (2011. 5. 20)**
 - TTC는 사업활동을 해외에 소개하는 한편 해외 표준화기관 회의 참여 및 인맥을 통한 표준화 정보를 입수하고 TTC 사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기 2년의 TTC 대사(TTC Ambassador) 제도를 만들어 영국(NEC)과 독일(NTT)에 주재하는 2명을 선출하였다고 발표



■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 9억명 돌파 (2011. 5. 24)

-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발표에 따르면, '11년 4월 중국의 휴대전화 계약 수는 총 9억 30만건임. 주요 제조업체는 29.6%가 노키아, 22.6%가 삼성이며, 휴대전화 중 28%가 스마트폰이고, 3G 사용자는 불과 6,700만명임. 한편, 인도 통신감독국(TRAI)에서는 인도의 휴대전화 계약수는 '11년 3월말 8억 1,100만건으로 발표

■ 미국 가트너, 인도 IT 서비스 성장 가속세 (2011. 5. 26)

- 2010년 세계 IT 서비스 상위 10 개사의 연간 성장률은 5.8 %, 또한 세계 시장 전체의 성장률은 3.1%인 반면, 인도의 IT 서비스 상위 10 개사의 연간 성장률은 19.9 % 라고 발표

■ 미국, 사이버보안을 위해 Open-source 소프트웨어 사용을 검토 (2011. 5. 26)

- 보안 프로젝트의 일환인 HOST(Homeland Open Security Technology) 프로그램에서는 open-source 소프트웨어 조사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0백만 달러 투입 예정

■ 일본 데스크톱 가상화 비용 절감효과는 5년간 약 3,800만엔 (2011. 5. 27)

- 일본 IT 조사기관인 IT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년간 데스크톱 가상화 및 관리 클라이언트의 도입을 통해 전체 비용(TCO)으로 볼 때 일반 PC에 비해 데스크톱 가상화는 약 3,800만엔, 클라이언트에서는 약 1,100만엔의 절감효과 있을 것으로 예측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국제회의명	기간/장소	주요이슈	대응전략
ITU FG Cloud Computing	스위스 제네바 '11.4.5-4.8	- 지난 라니용 회의부터 기술적 이슈 본격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전략 개발이 요구됨	- 한국의 클라우드컴퓨팅 표준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중국, 일본, 미국 등은 정부-민간이 전략적으로 협력
ISO TC 204 WG 16	체코 프라하 '11.4.9-4.17	- 안전애플리케이션 적용 표준화 관련하여 새로운 MAC 기술 신규 아이템 협의	- WAVE 표준과의 harmonization 작업은 현재 미국과 독일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적극 참여 - 적극적인 국내 산업체의 의견 수렴(TTA PG310 WG3104 및 WG3106)을 통해 표준 개발을 진행
ITU-T SG 17	스위스 제네바 '11.4.13-4.21	- TD1808Rev.2를 발행하였으며, 신규 아이템 채택을 위한 템플릿을 작성하여 TD1857Rev.5(X.sap-6)를 발행	- 신규 아이템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차기 회의부터 신규 표준안을 개발하여 표준화 진행 - 일본, 중국 등 관련 국가와 협의하여 표준화 진행 예정
ISO/IEC JTC 1 SC 31/WG 6 모바일 RFID	스웨덴 스톡홀름 '11.4.18-4.20	- 모바일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표준의 FDIS 추진 - 모바일 아이디 체계 및 디렉토리 서비스 체계의 ISO와 ITU-T의 공통 표준 추진	- 모바일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한 일본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FDIS를 추진 - 일부 표준에 대한 ISO와 ITU-T 공통 표준 추진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찬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힘입어 한국 주도로 공통 표준이 진행될 예정
ITU-T SG 5	스위스 제네바 '11.4.27-5.2	- WP3, Q21 :작년 회의에 이어 휴대폰 범용충전단자에 관련한 L1000 개정 및 L1000 후속작업인 Ladapter Phase 2, 범용 배터리 표준 등이 큰 이슈로 진행	- 우리나라 20핀 표준이 규격으로의 실질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에서 후속 논의를 통한 추진 정책 필요 - 범용 배터리 표준의 경우는 차기 회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산업계 입장을 고려한 세부 기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ITU-R WP 4A	스위스 제네바 '11.5.6-5.11	- 21.4 ~ 22.0 GHz 대역을 이용하는 방송위성망에 적용되는 절차 및 기술 기준 연구 (WRC-12 의제 1.13 관련)	- 인접국 지상망으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보장되는 기술 기준 작성 필요
ITU-T SG 13	스위스 제네바 '11.5.10-5.19	- WP 4 산하 Q.16는 NGN 관련 Security와 Id 관리에 대한 권고 표준 작업	- 지난 회의에서 NGN 환경에서 Security risk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고 초안에 security 구조를 제안 - security risk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기능에 대한 문서를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 기고서를 제출
MIDS 국제형상검토 회의(MIRB)	터키, 아즈미르 '11.5.16-5.20	- WRC-11 의제1.4(항공이동) 관련 Link-16대역 향후 주파수운용 방향 토의 - Link-16 주파수 주요 현안 협의 및 대역 조정 후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 - 한국군 Link-16 도입 무기체계의 항공이동업무 주파수 대역 조정	- Link-16 단말기가 운용 시 960-1215MHz 대역에서 민간서비스용으로 향후 결정될 주파수와 군 작전간 문제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
ASTAP 18차 포럼	방콕 '11.5.21-5.29	- NGN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모델에 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 - ITU-T focus group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권고 A.7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에 대한 논의 - WTSA-12 준비를 위한 ASTAP내 준비반 구성과 이를 리드하기 위한 리더쉽 결정	- 권고 A.7의 수정은 ASTAP의 의견을 존중하며 추진이 적정 - WTSA-12 준비반 활동과 관련, 본 ASTAP 준비반을 통해 국내 의견을 APT 의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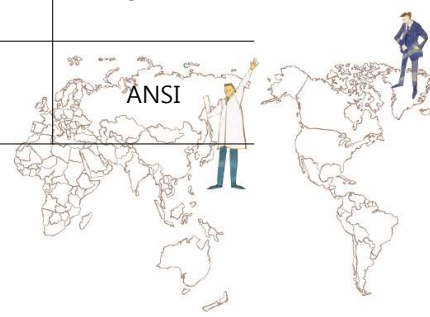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TTA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 참고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5월 1일 ~ 31일)

※음영표시 : 본문 수록

보도날짜	최 신 소 식	출처
2011-04-26	ITU-ISO, ITS 통신을 위한 Joint Task Force 구성	ISO
2011-04-27	일본 iSIPc, 일본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패널 토론회 개최	iSIPc
2011-05-02	세계 인터넷 연결 평균 속도 1위 한국 -'인터넷 현황 보고서 아태판'	RBB Today
2011-05-03	유럽연합, 미래 인터넷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시작	유럽연합
2011-05-03	ITU,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CYBEX) 제정	ITU
2011-05-06	European Payments Council(EPC), NFC(Near Field Communications)를 이용한 지불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PC world*
2011-05-10	유럽에서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SG-CG 간사 기고) *SG-CG : CEN, CENELEC and ETSI Smart Grids Coordination Group	Talk standard
2011-05-10	ITU, 범용 충전기 표준화	ITU
2011-05-10	안드로이드 단말을 노리는 악성코드 400% 급증	Juniper Networks
2011-05-11	중국, 인터넷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State Council Internet Information Office) 설치	USITO*
2011-05-12	ISO, 소비자의 표준개발 참여 이점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 http://www.iso.org/iso/involving_consumers.pdf	ISO
2011-05-13	ITU, EPO(유럽특허청)와 정보공유 합의	ITU
2011-05-13	NIST, "표준화 활동에 연방정부 참여 설문조사" 결과 중간보고	NIST
2011-05-13	유럽 JPG, 영국의 'open standard'에 우려 표명 *JPG(Joint Presidents' Group) : CEN, CENELEC, ETSI 3개 CEO 협의체	Computer Weekly*
2011-05-16	애플, 구글, MS는 화상통화를 왜 간소화하지 않을까?	CNN*
2011-05-16	NIST, 클라우드 컴퓨팅 가이드 초안 발표 및 공개검토 요청	ANSI



2011-05-17	Open Virtualization Alliance 결성 - 커널기반 가상머신(KVM)을 포함한 공개 가상화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BMC Software, Eucalyptus, HP, IBM, Intel, Red Hat, SUSE가 참여	Open Virtualization Alliance*
2011-05-17	ETSI, UPU(Universal Postal Union)와 전기통신 및 RFID 상호운용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ETSI
2011-05-18	일본, 클라우드 도입기업 65%가 기대한 성과 만족	IT media
2011-05-18	일본 총무성, 두뇌와 ICT 융합 최종 보고서 발표	일본 총무성
2011-05-20	TTC, TTC 대사(Ambassador) 선정	TTC
2011-05-23	유럽연합,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개정 법률 발효	유럽연합
2011-05-24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 9억명 돌파	중국 공업정보화부
2011-05-26	일본, WiMAX 등 단말기의 의료기기 전파영향 보고	일본 총무성
2011-05-26	미국 가트너, 인도 IT 서비스 성장 가속세	Japan.internet.com
2011-05-26	미국, 사이버보안을 위해 Open-source 소프트웨어 사용을 검토	Innovation News Daily*
2011-05-27	일본 데스크톱 가상화 비용 절감효과는 5년간 약 3,800만엔	IT media
2011-05-31	ITU, FG AVA (Focus Group on Audiovisual Media Accessibility) 작업계획 마련	ITU

※출처에 * 표시된 기사는 "Consortiuminfo.org"에서도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